

96.5.8 애ના가 가사 늘더라도 여성 25% “취업 찬성”

통계청 15살이상 남녀 8만여명 조사

곽정수 기자

우리나라 성인여성 4명 중 한명은 결혼을 하거나 자녀를 갖더라도 계속 직업을 갖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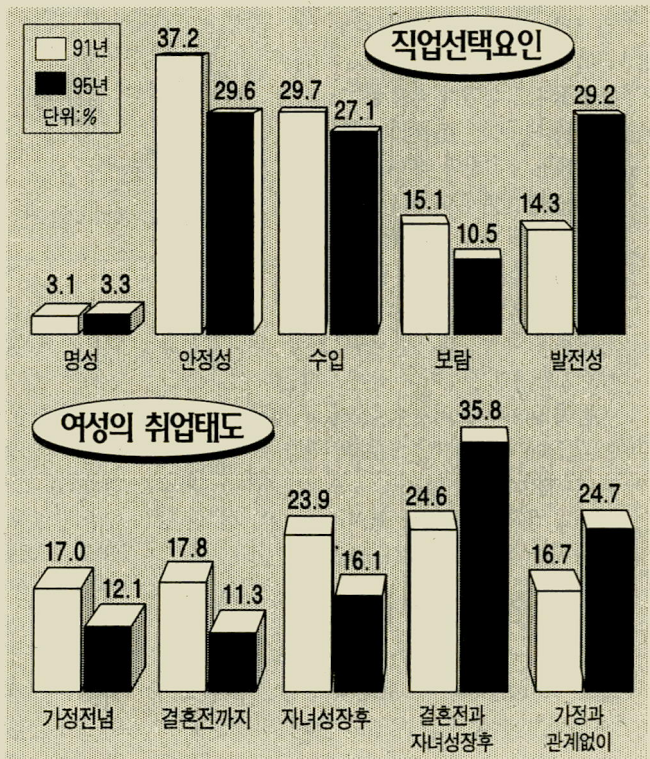
또 성인남녀가 직업을 선택하는 기준에서는 수입보다는 발전성을 중시하는 추세가 늘고 있으며, 특히 젊고 학력이 높을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8일 통계청이 전국의 15살 이상 남녀 8만3천5백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95년도 고용·노사부문 사회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결혼 전이나 자녀성장 뒤 △가정에 관계없이 직업을 가졌으면 한다는 응답이 각각 34.1%와 20.9%로, 91년도 조사에서 나타난 응답률 22.5%와 13.7%에 비해 크게 높아졌다.

반면 '가정에만 전념하겠다'는 응답은 15.8%로 4년 전에 비해 5.3%포인트가 줄었고 △결혼 전까지만 취업하겠단 △자녀성장 뒤 취업하겠다는 응답도 각각 13.2%와 16.2%로 낮아져, 사회전반에 걸쳐 여성의 경제활동을 긍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여성의 경우 '가정에 관계없이 직업을 갖는 게 좋다'는 응답이 24.7%에 달했고 남성은 16.8%로 낮았다. 연령별로는 10, 20대가 각각 38.6%와 28.5%인 반면 30대 이후는 10%대에 그쳐 세대차가 두드러졌다.

여성 취업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가사 및 육아 부담'과 '여성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각각 52.5%와 24.7%에 달했고 '직업의식 및 책임감 부족'과 '능력 부족'은



각각 8.7%와 4.3%에 그쳤다.

직업을 선택하는 요인으로는 안정성이 29.6%로 가장 높았고 △발전성 29.2% △수입 27.2% △보람 10.5% △명성 명예 3.3% 등의 순이었다. 4년 전 조사와 비교하면 발전성이 14.3%에서 두배 이상으로 높아진 반면 안정성은 37.2%에서 8%포인트나 낮아졌다. 또 10대와 20대의 경우 발전성을 최우선으로 꼽은 응답비율이 47%와 39.5%에 이르렀으나 30~50대는 안정성과 수입을 우선시했다. 학력이 높을수록 발전성을, 학력이 낮을수록 안정성과 수입을 중시했다.

근로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만족과 보통이라는 응답이 인간관계에서 90%를 넘는 것을

비트해 △직무 83.4% △인사 76.8% △복지후생 71.4% △작업환경 70.5% △장래성 69.1% 등 다수를 차지했다. 그러나 임금은 보통 이상이 57.8%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길다는 응답이 43.6%에 달한 반면 짧다는 응답은 2.4%에 그쳤다.

취학 전 자녀가 있는 가구의 양육실태는 부모가 돌본다는 응답이 55.9%로 가장 많았으며 육아시설 32.7%, 가족·친인척 10.2%, 파출부·가정부 0.8% 등의 순이었다. 이용하는 육아시설은 유치원·학원이 22.4%로 가장 높았고 유아원·선교원 6.5%, 어린이집 2%, 놀이방 1.7%, 직장 탁아소 0.1% 등이었다.